



행복한 성당, 하와이 한인성당

#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Oratory

- 주임신부 : 권지훈(베드로)
- 사목회장 : 김성연(야고보)
- 사제관 : (808) 422-1040
- 사무실 : (808) 422-1010

◦ 성당 주소 : 511 Main St, Honolulu, HI 96818 ◦ 성당 이메일 : [honolulukcc@gmail.com](mailto:honolulukcc@gmail.com)  
 ◦ 홈페이지 : <https://standrewkimhawaii.org>

제2240호 2025년 3월 9일(다해)

<b>미사 안내</b>	<b>평일</b>	화, 수, 금 : 오전 10:30 목 : 오후 7:00	<b>주일</b>	토 : 오후 4:00, 오후 7:00 일 : 오전 06:30, 10:30 오후 4:00(St. Peter & Paul 성당, 매월 셋째 주 마우이 공동체)
<b>연령회</b>		- 병자성사나 봉성체를 희망하시거나 임종 환자 또는 망자 발생 시에는 신속히 연령회로 연락 바랍니다. - 이영미 세실리아 Home : 808.664.0632, Cell : 808.389.1702		



## 오늘의 미사

## 사순 제1주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당송 : 나를 부르면 나 그에게 대답하고 그를 해방시켜 영예롭게 하리라. 오래오래 살도록 그에게 복을 내리리라.</li> <li>▶ 1독서 : 신명기 26,4-10</li> <li>▶ 화답송 : 주님, 환난 가운데 저와 함께 계시옵소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독서 : 로마서 1서 10,8-13</li> <li>▶ 복음 환호송</li> <li>◎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li> <li>◎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li> <li>▶ 복음 : 루카 4,1-1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성체송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li> </ul>	



### 사목공지

- ① Peter & Paul 성당 파견 미사 없음 : 3월 16일 (일)  
-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
- ② 매월 셋째 주(일) 2시30분 미사는 마우이 공동체입니다.  
(St. Anthony Church - 1627 Mill St. Wailuku, HI 96793)
- ③ 고해성사는 미사 전에 고해소에서 합니다.
- ④ 미사 참석 시 명찰 착용 부탁드립니다.
- ⑤ 3월 봉성체 안내  
3월 봉성체는 3월 20일(목, 오전)에 서쪽지역 3월 21일(금, 오후)에 동쪽지역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 사목위원회

- ① 십자가의 길 안내
  - ※ 기간: 3월 9일 - 4월 18일(사순시기) 교중미사 전 9시 40분 이 시간 외에도 모든 주일 미사 전(새벽미사는 미사 후)에 십자가의 길 시행됩니다.
  - ※ 4월 18일(주님 수난 성금요일) 수난 예식 전 오후 6시

③ 십자가의 길 분과 단체 담당(준비물: 기도서)



사목위원회

3월 9일	사순 제 1주일	전례분과
3월 16일	사순 제 2주일	명도회
3월 23일	사순 제 3주일	시설분과
3월 30일	사순 제 4주일	청소년분과
4월 6일	사순 제 5주일	홍보분과
4월 13일	주님 수난 성지주일	교육분과
4월 18일	성 금요일	선교분과



구역 및 단체

① 다락방 모임 안내

일시: 3월 9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컨퍼런스 룸

② 예비자 선발예식 준비 모임 안내

일시: 3월 9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새신자 교리실  
대부, 대모 참석 바랍니다

③ 연령회 모임 안내

일시: 3월 16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성당(강기중 베드로 형제님 연도)

④ 와이파후 구역 모임 안내

일시: 3월 16일(일) 오후 4시  
장소: 이영미 세실리아 자택  
전화: 808 389 1702

⑤ 소공동체 모임을 재개합니다.

각 공동체에서는 소공동체 모임에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 달에 1회 모임을 원칙으로 하되, 소규모 인원이라도 실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타공지

① 주일 현금 카드(초록색 봉투) 공지

성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초록색 현금 봉투가 많이 분실이 된 상태입니다. 집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 봉투가 있으면 성당에 반납하길 부탁드립니다.

② 한글학교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 송정선 데레사



현금

3월 29/30 Catholic Relief Services를 위한 2차 현금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3월 1일 ~ 2일 : \$10,222				지난주 미사 참례자 수	353
	주일현금	교무금	2차 현금	특별현금		
	\$3,732	\$6,230		\$260		

<b>옥 치과</b> 일반치과, 신경치료, 응급치료 메디케어 제공 / 808-946-2875	<b>동양관광여행사</b> 항공권도매/섬일주/이웃섬 관광/호텔예약 944-3949/info.orient1988@gmail.com	<b>브라이언 오토 바디샵</b> 자동차바디수리·보험처리/친절상담 흥 프란치스코 / 836-5887
<b>김남훈(베드로) CPA</b> 회계감사, Book Keeping, 세금보고 947-2470	<b>New York Life</b> 은퇴연금/학자금/재산증식/무료상담차 그레고리오 / 226-3344	<b>마마우 바비큐(타운에 위치)</b> 케이터링, 가족행사, 각종 큰 행사 음식전문 예로니모/808-941-6262, 808-743-8200

## ■ 십자가의 길 유래

사순시기, 교회는 신자들이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며 그리스도의 수난을 묵상하길 권고한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중세 이후다.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도,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보나벤투라 등의 성인들이 ‘십자가의 길’에 큰 관심을 두고 참여했다. 십자가의 길을 단순한 순례가 아닌, 신자의 심신을 수련하는 기도로 여긴 것이다.

12세기 경 예루살렘 성지순례가 다시 시작되면서 순례자들은 자신들의 도시에 예루살렘의 ‘거룩한 장소’를 닮은 모형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형은 그리스도가 고난 받은 길과 머무른 장소를 나타내는 ‘처(處)’를 경배하는 모습으로 발전했다.

특히 프란치스코회 수도원이나 경당을 중심으로 이런 처들이 설치되면서 십자가의 길의 길이 널리 퍼졌다.

십자가의 길의 길 14처로 고정된 것은 1731년 교황 클레멘스 12세의 승인을 얻으면서다. 이때 고정된 14처는 ▲사형선고를 받음 ▲십자가를 짐 ▲첫 번째 넘어짐 ▲마리아를 만남 ▲시몬이 예수를 도와 십자가를 짐 ▲베로니카가 예수의 얼굴을 닦음 ▲두 번째 넘어짐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함 ▲세 번째 넘어짐 ▲병사들이 예수의 옷을 벗기고 초와 쓸개를 마시게 함 ▲십자가에 못박힘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둠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 ▲무덤에 묻힘 순으로 이뤄진다.

14처로 고정된 십자가의 길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전통적인 신심행위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 의미로 예수의 부활을 첨가해 15처를 사용하는 곳도 있다.

교회는 예루살렘을 순례할 수 없는 사람들이 14처가 설치된 곳에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쳐 전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왔는데, 이는 오늘날에도 적용된다.

십자가의 길로 전대사를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채워야 한다. 먼저 기도 장소가 교회가 정한 법에 따라 설치·축성된 14처여야 한다. 14처 전체를 중단하지 않고 바쳐야 하고, 각 처를 이동하며 바쳐야 한다. 단, 공동체가 함께 기도를 바칠 경우 움직임이 불편하면 주송자만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전대사의 일반적 조건인 고해성사와 영성체, 교황의 지향을 위한 기도를 한다면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출처 : 가톨릭뉴스



알아봅시다

<p><b>Business Insurance Service, Inc</b></p> <p>보험 컨설팅, 상가·집·자동차 보험 사도요한 김형섭 / 599-9810, 592-5011</p>	<p><b>이한주 마태오 재정설계</b></p> <p>상속, 절세, 롱텀케어, 생명보험, 연금, 학자금 carlitos3840@gmail.com/213-321-8787</p>	<p><b>뷰티터치(BEAUTY TOUCH)</b></p> <p>한국 화장품 종합 백화점 문의: 임영림 안나 Tel:(808)271-4802</p>
<p><b>(주)에이스원글로벌</b> (사슴태반 전문기업)</p> <p>“당신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켜드립니다” <a href="mailto:youngminina@gmail.com">youngminina@gmail.com</a> 문의:류영미 마리아막달레나 808-398-1275</p>	<p><b>Ginzawon(긴자원)</b></p> <p>Korean B.B.Q(Waikiki) 문의: 김태영 안토니오 808-220-0768 808-922-3387</p>	<p><b>묘지매매</b></p> <p>묘지: korean Memorial Garden Lot 39 Section B Sites 1,2,3,4 , (판매) 가격 절충 가능 문의: 심소영/ 808-798-5100</p>

## 이명서 베드로

성인명	이명서 베드로 (李-- Peter)
축 일	9월 20일
활동 연도	1821-1866년

성 이명서 베드로(Petrus)는 충청도의 어느 열심한 신자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박해를 피하여 이리저리 다니다 보니 자연 고향을 등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완주군 구이면 고소대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고소대 사람이라고도 한다. 그는 1866년에 다시 전주 성지동으로 이사하여 살았는데, 온순한 성품과 착한 마음씨를 지녔고 예의범절이 깎듯하며 착하고 어진 사람으로도 널리 알려졌으나 가슴앓이로 고생을 하였다고 한다.

성지동 신자들이 다가올 박해를 예상하고 한 자리에 모였을 때 그는 “사세가 그렇게 다급하게 되었다면 빨리 피해야지요, 나는 병 때문에 피하지 못할 처지이고 천주님의 안배에 의지할 따름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천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내 병은 영원히 낫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순교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1866년 12월 5일 저녁에 포졸들이 이 베드로의 집을 덮치자 심경이 달라진 그는 생에 대한 미련이 남아 포졸에게 애걸하였으나, 옆에 있던 조화서의 말을

듣고 “내 아까는 무서워서 그랬지만 사실은 나도 신자올시다” 하고 말하였다.

이리하여 그도 전주로 끌려가 감사 앞에서 문초를 받았다. 가슴앓이 환자인 줄 알면서도 감사는 죄수의 손발과 머리를 묶어 고정시켜 놓고 등허리를 난타하였다. 배교하라는 감사의 말에 그는 “수십 번을 죽는다 해도 천주교를 따를 것이요.” 라고 하면서 배교를 단호히 거부하였다. 마침내 그는 사형선고를 받고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우리의 소원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리라고는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기뻐하였고, “오늘 치명하면 곧장 천국에 들어가 진복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행복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며 기뻐하였다고 한다. 이리하여 그는 전주 숲정이 형장에서 1866년 12월 13일 참수형을 받아 순교하였고, 이때 그의 나이는 46세였다. 그는 1968년 10월 6일 교황 성 바오로 6세(Paulus VI)에 의해 시복되었고, 1984년 5월 6일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을 기해 방한한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Joannes Paulus II)에 의해 시성되었다.

**ARBOR Financial Group NMLS# 236669**  
 심소영: 주택융자담당  
 Cel: (808) 798-5100  
 Email: sharis@arborfg.com

**최 니콜 부동산**  
 Locations, LLC Cell 225-5566  
 www.ChoiHawaii.com  
 nicole.choi@locationshawaii.com

**메디케어 보험**  
 (65세 이상 및 장애인)  
 한국어, 영어 가능(심 크리스티나)  
 Shari Shim / 798-5100

**메리장 가정의학 클리닉**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료합니다  
 예약전화 808-941-7799

**A'ALA Meat & Seafood Inc**  
 문의전화 808-452-8473 서삼렬 사무엘  
 samseo@aalameatandseafood.com

**보나 최 부동산**  
 문의 전화 808-636-5217  
 bona.choi@cbpacific.com  
 Coldwell Banker P.P.